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를 중심으로 -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Images in Fashion

- Focused on the Postmodern Grotesque -

인천대학교 패션 산업학과
전임강사 박은경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 of Incheon

Full-time instructor : Park, Eunk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 |
| II. 그로테스크 개념의 사적 고찰 | V. 결론 |
| III. 예술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images in fashion specially focused on the postmodern grotesqu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fash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ostmodern grotesque fashion images in the years of 1990-2000 can be analyzed as trans-stylistic, trans-boundaries which have been set by the modern western white elite men group.

The postmodern grotesque fashion images in the years of 1990-2000 can be categorized as

1) unclear boundaries between genders: body and dress; human being and non-human being; life and death; wholeness and fragmentation; clear body and abject body.

2) violence to the body: body mutation by simplification, exaggeration; body injury.

주제어(Key Words):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grotesque fashion image), 신체(body), 모호한 경계(unclear boundaries), 신체에의 폭력(violence to the bod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패션의 다양한 정의 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패션이 그 시대의 지배적이며 대표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으로, 패션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미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즉 다수의 사람들은 패션을 통해 지배적인 미의 규범을 따르면서 동시에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패션에 있어 지배적인 미는 시대와 지역, 문화 등에 따라 변하는데 20세기 초 모더니즘이 대두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서구 백인 남성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계급, 남녀 성과 인종의 구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미가 보편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이후 도래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 권력 집단이 행사하였던 성, 인종, 계급 차원의 모순이 극복되고 권력이 탈 중심화 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미의식이 몸과 패션 위에 반영되게 되었다(이민선, 2001). 따라서 인간의 몸은 규제와 억압에 의한 단일하고 보편적 전체에서 벗어나는 포스트모던적 신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예술과 패션에서 신체에 대한 관심은 극단적인 표현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흐름 속에서 20세기 말 일부 패션은 복식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신체 인식과 복식의 구성, 제안 등에 있어 혼란스럽고 왜곡되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 방법중 부정적, 충동적 의미의 표현을 뜻할 때, 또 신체의 왜곡과 관련될 때 우리는 그로테스크를 떠올리게 된다(이건모, 1989). 그로테스크는 고전적인 미의식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득세하여 나타난 예술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다(최정화, 유영선, 1998).

최근 다양한 패션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패션에서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 표현에 대한 연구는 일부(이정후, 1998; 안선경, 양숙희, 1995)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졌을 뿐이다. 최정화 외 1인(1998)은 현대사회의 문제

점들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예술 영역 중 중요한 개념으로 그로테스크가 부상한다고 하면서 예술과 패션에 나타난 표현기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최근 예술과 사회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로테스크와 관련이 깊은 신체담론을 포괄하지 못하여 그로테스크의 개념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신체담론과 연관시켜 정리하고, 예술에 표현된 그로테스크를 살펴본 뒤,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를 분석하되 특히 그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20세기 말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그로테스크의 개념은 신체 담론과 관련되어 어떻게 파악되는가?
- 2) 그로테스크는 예술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가?
- 3) 그로테스크는 패션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가?
- 4)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조형성과 내적 의미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와, 패션 서적, collezioni, fashion news 등의 컬렉션지, www.firstview.com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자이너의 컬렉션 자료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범위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연구범위를 이렇게 제한 한 것은 이 시기에 신체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과 예술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패션에서 포스트모던 경향으로 인한 다원화 현상이 본격화되어 나타났으며, 세기말의 영향으로 패션에서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가장 뚜렷하게 표출되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를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 패션의 중요한 한 흐름으로서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의 체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변화된 최근 사회 문화에 맞게 경쟁력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디자인 창조를 위한 토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그로테스크 개념의 사적 고찰

1. 그로테스크의 사전적 정의 및 초기 개념

그로테스크(grotesque)란 식물, 동물, 인간, 공상 속의 동물 등이 환상적인 방식으로 서로 결합되는 고대 장식의 어떤 특정한 형식을 말하거나(논장 편집부 엮음, 1998)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된다(두산 세계대백과 Encyber).

그로테스크라는 용어는 위와 같은 형식의 고대 장식물이 16세기 초에 발굴되면서 이것을 그로테스카(la grottesca)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Thomson, 1985). 이러한 장식 유형은 로마 시대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중세와 르네상스에도 지속되었는데 질서와 조화를 갖춘 고전 양식에 비해 기괴하고 우스꽝스럽다는 뜻에서 잠종형태 혹은 야만적 양식으로 평가받았다. 그로테스크라는 용어의 사용은 16세기에 문학과 비 미술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2. 중세 및 르네상스의 그로테스크

중세와 르네상스 민중들에게는 봉건적 중세와 교회의 공식적이고 엄숙한 문화에 대립되는 웃음의 문화라는 독특한 범주가 활성화 되어있었으며 그 형식과 표현은 다양하였다. 이를 대변하는 이미지 체계는 초기 개념에서 확장된 그로테스크이다.

이 시기의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카니발, 성사극 속의 악마적 연극, 어릿광대극 등과 같은 민중 축제 구경거리 형식들 속에서 특히 지대하고 본질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또한 다양한 골계 문학 작품들, 욕설, 풍자와 같은 광장 언어의 여러 형식과 장르들에서도 나타나는데 문학의 경우 르네상스 작가 Rabelais의 작품이 가장 대표적이다.

Rabelais는 그로테스크를 신체 부위를 묘사하는데 사용하여 그로테스크 신체라는 개념을 대두시켰다. 그의 작품 속에는 신체 자체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 그리고 성생활의 이미지들과 같은 삶의 물질·신체적인 원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며 극도로 부풀려지고 과장된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다른 르네상스 문학 대표작가들에게서도 유사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의 복권은 중세의 엄격한 금욕주의와 르네상스의 고전적 신체에 대한 반동으로 설명되기도 한다(Bakhtin, 2001).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회화적 이미지는 중세 사원이나 시골 교회 장식의 프레스코와 부각(浮刻)에서 찾아 볼 수 있고 르네상스 화가 Hieronymus Bosch와 Bruegel의 작품에서도 잘 보여진다.

중세와 르네상스 그로테스크의 주도적인 특성은 격하시키는 것으로 고상하고 정신적이며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모든 것을 물질·신체적 차원으로 이행시켰다. 그로테스크 속에서 물질·신체적 요소들은 웃음을 통한 심오한 긍정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전 민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신체적 삶의 묘사 양식은 고전주의적 양식 뿐 만 아니라 자연주의적인 유형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3. 18세기 중엽~19세기 초 낭만주의 그로테스크

문학과 예술에서 고전주의적 규범이 우세했던 17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 그로테스크는 시대의 대문학과 유리되어 하부의 코미디로 전락하였다. 영국과 독일에서 그로테스크는 캐리커처와 관련됨으로서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게 되어 '우스꽝스러운', '부자연스러운',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 경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Thomson, 1985). 이런 뜻은 19세기와 20세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대에 그로테스크는 그것의 진지한 특질을 강조하는 작가들에 의해 예술개념, 미학적 범주로 발전되었다. Shlegel은 그로테스크의 본질이 현실의 이질적 요소들의 기묘한 혼합 속에서, 일상적 질서와 구조의 파괴 속에서, 이미지들의 자유로운 환상 속에서, 열광과 아이러니의 교체 속에서 목격된다고 하였다. Jean Paul은 그로테스크를 파괴적인 유머라고 하여 급진적 성격을 강조했는데 세계는 유머에 의해 무엇인가 낯설고 두려우며 입증될 수 없는 것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Bagehot는 그로테스크가 아름답고 숭고한 것의 뒷면을 이루는 부정적인 본보기라고 하였다. Hugo도 그로테스크의 본질은 괴기스러운 것의 미학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것의 웅색한 한계에 비해 희극적인 것, 무시무시한 것, 추한 것은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므로 그로테스크는 숭고와 결합하여 낭만주의의 완벽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Thomson, 1985; Bakhtin, 2001).

위와 같은 의미변화와 함께 낭만주의 그로테스크는 주관적 관념 철학적으로 되면서 웃음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즐겁고 유쾌한 면모를 상실하여 공포가 강조되면서 중세 및 르네상스 그로테스크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중세와 르네상스 그로테스크에서는 웃음에 의해 공포가 항상 우스꽝스럽고 즐거운 것으로 변하는데 비해 낭만주의 그로테스크에서는 익숙한 자기의 세계가 갑자기 낯설고 적대적인 타인의 세계가 되어 버리는 공포가 존재한다(Bakhtin, 2001).

4. 20세기 그로테스크

1) 모던 그로테스크

그로테스크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말 축소되다가 20세기에 다시 부각되면서 그 본질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Chesterton은 그로테스크를 사실적인 것과 관련시킴으로써 '세상을 거짓없이 새롭게 표현하는 수단이자 현실세계의 반영'으로 보았으며, Clayborough는 소외의 개념을 강조였다(Thomson, 1985).

Kayser는 1957년 저서 [예술과 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에서 그로테스크의 본질에 대한 뛰어난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그로테스크가 주목할 만한 미학적 분석과 비평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카이저의 연구는 모더니즘 입장에서 낭만주의 그로테스크만을 분석한 것으로 모던 그로테스크 개념을 대표한다.

Kayser는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적대적이고 낯설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소외된 세계의 표현이고, 예술가는 존재의 깊은 부조리들과 반쯤은 우스개로 반쯤은 겁에 질려 장난을 한다'고 하여 그로테스크의 양면성과 정신적 소외, 공포를 유발하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비애와 뒤섞인 웃음이 그로테스크 적인 것으로 변모할 때 그 웃음은 조소적, 냉소적이며 마침내 악마적인 웃음의 특징을 띠게 된다'고 하여 그로테스크의 웃음의 해방적인 요소를 없애지 않게 하였으며 그로테스크가 죽음이 아닌 삶의 공포를 언급한다고 하여 삶과 죽음 사이의 상호대립을 언급하였다(Bakhtin, 2001; Thomson, 1985).

2) 카니발 그로테스크

러시아 비평가 Bakhtin은 1965년 르네상스 작가 라블레의 작품을 분석한 저서 [라블레와 그의 세계(Rabelais and his world)]에서 모던 그로테스크 개념은 공포로만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그로테스크의 미학적 본질은 중세와 르네상스 카니발 민중문화와 문학자료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카니발 그로테스크 이론을 개진하였다. 그는 카니발과 같은 중세와 르네상스 웃음의 구경거리 형식들은 축제기간 동안 모든 민중들이 참여하는 제 2의 삶이었으며, 공식적 위계질서가 일시적으로 파괴되어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운 접촉과 평등이 이루어지며 소외가 사라져버린다고 하여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유토피아 이상주의와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강조하였다(Bakhtin, 2001).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본질적으로 신체 및 신체적인 부절제에 관련되어 이런 것들을 과도하고 난폭하게, 그러면서도 유쾌하게 찬양한다. 카니발 그로테스크에서 신체 이미지는 연회, 음식과 결부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데, 신체를 물질적 살덩어리, 성욕으로 환원시키며 또한 생명과 직결된, 그러나 금기된 것을 강조하고 비천한 분비물과 배설물까지 신체의 일부로 편입시킨다(김홍희, 1998). 카니발 그로테스크 신체 이미지의 근본 중 하나는 고대의 임신한 노파의 진흙 상처럼 대비되는 두 개의 신체가 하나 속에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근본은 신체 경계에 대한 특수 개념으로 자신보다 더 커지고 경계들을 넘어서며 새로운 신체를 수태할 수 있는 배와 남근, 엉덩이, 입과 같은 부위들이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며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카니발 그로테스크 신체에서 기본적인 사건들은 먹고 마시기, 배설, 성교, 임신, 출산, 성장, 노화, 질환, 죽음, 찢기, 다른 신체에게 먹히기이다. 이 사건들 속에서 신체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 못하고 세계와 뒤섞이며, 삶의 시작과 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게 된다(Bakhtin, 2001).

이상과 같이 출생과 성장의 모든 찌꺼기로부터 정화된 듯한 고전적 신체 이미지들과의 대립을 통해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웃음은 유쾌하고 환호하는 동시에 조소적이고, 부정하는 동시에 긍정하는 양면 가치를 지닌다.

3)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과 함께 대두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는 신체적 범주이자 희극 장르인 카니발 그로테스크와 공포의 심리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갖는 모던 혹은 언캐니 그로테스크의 두 축으로 형성된다. 신체와 심리는 총체적 인간을 만드는 하나의 양면이므로 결국 두 범주의 그로테스크는 대립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Meindi(1996)는 미국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에서 카이저와 바흐친의 그로테스크 개념을 합하여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김홍희(1988)는 페미니스트 학자 Mary Russo의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이론에 근거하여 이것이 성의 정치학을 몸의 정치학으로 연장시키는 현대의 대표적인 신체담론이라고 하였다.

1980년대 말 Mary Russo는 Kayser의 모던 그로테

스크 개념과 Freud의 언캐니(uncanny)개념으로부터 언캐니 그로테스크를 도출하고, 이것을 카니발 그로테스크와 결합하여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담론을 이끌었다. 소외와 공포를 중심으로 하는 모던 그로테스크는 익숙지 않은 것과 그에 따른 불안, 음울, 실망, 억압을 의미하는 언캐니 개념에서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언캐니 그로테스크에 의하면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친숙한 것에도 그 안의 무엇인가에 대해 언캐니를 느낄 수 있다. 예로 인간은 생명 있는 존재나 생명 없는 대상이 정말로 그러한 지 의심이 들 때나 고향처럼 익숙한 여성의 성기에서도 언캐니를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억압에 의해 소외된 세계에 대한 감정이다(김홍희, 1998).

Russo에 의하면, 카니발 그로테스크 신체는 고전적 신체와 대립하면서 비공식적 저급 문화, 사회변형과 동일시된다. 신체를 내면의 문화적 투영으로 규정하는 언캐니 그로테스크의 신체는 생리학적 신체와 법 사이에 있는 허구적 담론에 의해 왜곡되고 비천해진다. 여기서 두 범주의 그로테스크가 결합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는 성적 정체성을 전복하는 여성적 그로테스크로 연결된다. 여성적 그로테스크는 깨끗한 신체와 더러운 신체간의 긴장을 다름으로서 비천함의 의미를 연구한 Julia Kristeva에 의해 설명된다. Kristeva에 의하면 주체의 안정적인 동질성은 깨끗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신체에 의해 위협받는다. 특히 음식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러움과 죄의식을 느끼며 신체 내부에 있던 것은 배설됨으로서 더러운 것을 바뀌게 된다. 따라서 비천한 신체는 신체 내부와 외부,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은유적인 경계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데 결국 모호성을 나타낸다. 또한 출산 같은 성적 차이 속에 구현된 여성 신체는 남성에게 대해 타자이거나 외부에 있는 존재로 묘사됨으로서 비천한 신체가 된다(Jobling, 1999).

여성적 그로테스크 신체는 부계적 규범의 신체를 거부하여 신체 노출, 성욕의 표출, 남장 여성, 동성애, 노파 등 금기된 것을 시도하는 비정상적이고 변이된 신체를 보이는 동시에 남성적 그로테스크를 배제하지 않아 성별을 초월하는 포스트젠더(postgender)가

된다(김홍희, 1998). 여성적 그로테스크의 대표 유형은 기술 발달에 따른 부정적인 면이 대두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있는 포스트휴먼(posthuman)이다. 포스트휴먼은 90년대에 나타난 개념으로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자아, 압박과 타고난 유전 코드로부터 해방된 자아이자 신체로서 사이보그로 대변된다. 기계와 유기체 사이의 잡종인 사이보그는 서구 백인 남성 중심주의의 전통적 신체를 벗어나 죽음과 영원한 생명, 남성과 여성, 인간과 비인간, 정상인간과 괴물을 동시에 지닌 이중 신체이다.

위와 같이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신체가 비친한 여성 그로테스크, 포스트젠더, 포스트휴먼으로 확장되는 시대적 사회 문화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여러 매체에서 보여지는 신체는 재현된 것으로 문화적 의미 창출, 사회 관계 구성, 권력 획득 수단으로서 시대와 문화적 문맥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어 왔으며(Mirzoeff, 1999), 최근 몇 세기 동안 유럽의 공식적 신체 규범은 완료되고 경계지어 단혀진 단일한 것이었다. 신체의 미완성을 나타내는 특징들이나 임신, 출산, 생리적 현상 등의 표현은 금지되었으며 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단일한 의미를 가져 죽음은 탄생과 구별되었다. 예로 서구 모던 시대에 재현된 신체는, 백인 엘리트 집단이 제국주의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신체를 규제하고자 그들 자신인 유럽 이성적 신사의 이미지를 이상적으로 투사시킨 것이었다(Ewing, 1997). 그들은 이를 정상신체로 규정하고 타 인종, 여성, 성적 이탈자, 범죄자 등을 이탈된 신체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불평등한 관계에 연관시킬 수 있었다(Terry et al., 1995).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기는 변화의 시기로 억압받고 무시되었던 요소들이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열등한 것, 이탈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신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이들간의 공존과 긴장은 현대문화의 변이에 중심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는 신체와 관련된 기본 범주의 위반과 범주체계 경계에서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예술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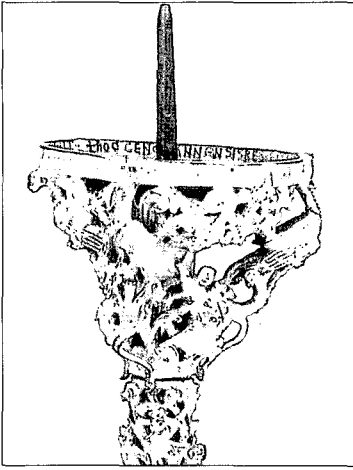
1. 중세 시대 예술

중세 초기 예술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양식은 게르만족 및 켈트족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 여러 세공품이나 성당 내부의 부조에서 다양한 동물들의 신체 부위들이 형태가 왜곡된 채 조합되거나 늘어져 복잡하게 얽힌 무늬로 발견된다(Janson, 1980). 또한 중세 중기와 후기의 장식 미술에서도 인간, 짐승, 공상동물, 괴물들이 뒤섞여 혼잡을 이룬 형상으로 그로테스크 양식이 나타난다.(그림 1)

2. 르네상스 시대 예술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활동한 북유럽 르네상스 화가 Hieronymous Bosch의 작품은 기묘하면서도 불합리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으며 고대 장식물의 그로테스크한 형상뿐만 아니라 중세와 르네상스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육체에 대한 관념을 잘 대변한다. 대표작 <쾌락의 동산>은 에덴 동산과 지옥을 묘사한 것으로 잡종 괴물뿐만 아니라 새, 과일, 꽃, 바다의 동물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들이 그려져 있다. 또한 인간들이 고문을 받는 지옥뿐만 아니라 쾌락적 욕망을 추구하는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통하여 Bosch는 엄격한 도덕주의자의 교훈적인 의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육체의 세계에 대한 감각적 매력에 도취되어 이를 축하하는 것으로 보인다(Gombrich, 1999; Janson, 1980).(그림 2)

예술의 완벽함과 조화를 달성한 르네상스 이후 1520년부터 1600년까지의 후기 르네상스 즉 마니에리즘 시기는 조화와 이성, 현실성 대신 부조화와 감성, 상상력을 발휘하고자 하였으며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려는 욕망에서 사실주의 양식을 버리고 불안정함을 추구하였다. 예로 인물들은 몸 전체가 비틀리고 왜곡되어 길게 늘어져 있거나 지나치게 근육질로 그려져 있으며 난폭하고 불안정해 보인다(Strickland, 2001).



〈그림 1〉 중세 촛대, 서양미술사



〈그림 2〉 Bosch, 미술의 역사



〈그림 3〉 Dali, 1935 Fashion and Surrealism

3) 상징주의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상징주의는 피상적인 외관의 세계를 버리고 환상 속에서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임으로서 진실을 통찰하고자 하였다. Redon은 자신의 관능적이고 뒤틀린 환상을 전달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곤충이나 코 없는 외눈박이 괴물, 인간의 머리를 한 식물, 아메바 같은 괴물, 안구 같은 풍선 등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많이 작업하였다. Munch는 질투, 관능적인 욕망, 고독 같은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왜곡되고 과장된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였다. 쉴레는 공포와 소외, 환상, 잔인한 자기 등을 표현하였는데 그의 인물들은 길이가 과장되거나 형태가 기형적이어서 괴이한 느낌을 준다 (Strickland, 2001).

4) 초현실주의

1920~1930년 사이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초현실주의는 논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 영역의 숨겨진 진실을 표현함으로써 인간 의식의 혁명, 억압된 인간 욕망에서의 해방, 참된 자유를 추구하고자 고의적으로 이상하고 비이성적인 것들을 다루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특히 신체의 다양한 변형을 작업함으로써 작품에서 그로테스크한 신체 이미지가 많이 보여진다.

대표 화가 Dali와 Magritt는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상식을 벗어난 환각적 장면을 창조하였다. 자신이 수많은 강박관념과 가상적 공포에 시달린 Dali의 그림 속 사물과 인체는 왜곡되어 있고 비현실적 광경 속에 위치해 있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으스스한 느낌을 준다. Magritt는 일상의 익숙한 모습들을 불합리한 맥락 속에 불안정하게 배치함으로써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Strickland, 2001; Gombrich, 1999).

〈그림 3〉에서 Dali는 여성의 머리를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신체 이미지는 기형적이며 그로테스크하다. 또한 신체를 감싸는 여러 개의 손은 여성 신체의 억압과 함께 에로틱, 죽음의 공포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4〉에서 Magritt는 신발이면서 동시에 절단된 발의 이중 구조를 표현하고 있어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무생물이 되며,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는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Martin, 1990).

5) 신체 예술, 비천한(object) 예술

1970년대에 시작된 신체예술은 개념미술의 한 부류로 신체를 도구화하였다. 신체 예술가들은 당시 사회 전반에 나타난 성, 마약과 병적 섹스 등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공포, 죽음과 같은 인간의 극한



〈그림 4〉 Magritt, 1935 Fashion and Surrealism



〈그림 5〉 Sherman, 1992 사진에 나타난 몸

상황을 마조히즘적 자해(自害)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자기 정화를 추구하였다(Atkins, 1994). 한편으로는 70년대의 페미니즘 운동에 영향을 받은 Schneemann과 Wilke 등의 여성 작가들이 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여성 신체의 재현에 관심을 기울였다(Pultz, 2000). 그들은 기존의 금기되었던 여성 신체의 한 단면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였다.

1980년대 이후 에이즈 등의 질병과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른 컴퓨터 시대의 비재현적 가상현실, 성형수술과 유전공학의 일부 부정적인 면이 시사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술가들은 인간의 생존문제와 본질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를 탐구하게 되었다. 이의 영향으로 90년대에 주로 신체 예술, 페미니즘 예술, 비디오 예술에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는 특히 파편적 신체와 신체의 물질성을 강조함으로써 포스트 휴먼 신체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예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술가들은 신체변형을 창작 모티프로 하거나 인간 내면의 양성성과 동물성을 표출시키고 절단된 신체나 해부학적 부위들을 강조함으로써 포스트모던 신체는 하나의 이상적인 전체가 아니라 단편들의 조합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Cindy Sherman은 80, 90년대 신체 예술과 비천함(abject)예술의 대표 작가로 어둡고 괴상하고 파편화된 여성의 육체를 표현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몸에서 배출된 구토물, 월경분비물과 같은 것으로 격하

시켜 훼손시키는 예술 작업을 하였다(Pultz, 2000). 예술에서의 비천함은 배설물과 분비물, 신체적 폐기물로서의 시체로 상징되는 동시에 이상화되지 않은, 걸핍되고 소모된 신체를 과시함으로써 여성적 아름다움을 규정한 부계 개념에 도전한다. 나아가 비천함의 예술은 비천함으로 규정되는 모계질서와 부계질서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포스트젠더라는 새로운 질서를 대두시키고자 함으로서 여성의 성적 표현을 역겹게 혹은 유희적으로 강조하기도 하였고 남성과의 구분을 거부하여 남성의 성을 더 강조하기도 하였다. 남성 작가들도 여기에 동참하였는데 예로 Mccarthy는 양성 동체적 행위를 통하여 성별 개념의 이분법에 도전하면서 신체 분비물의 상징을 이용하여 비천함을 표현하였다(김홍희, 1998).

Sherman의 작품 〈그림 5〉에서 여성의 몸은 조각들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적 부위를 드러내는 동시에 대조되는 늙은 노파의 얼굴 가면으로 이상한 조합을 보이는 비천함의 표현을 통해 생과 삶의 결합, 비천함을 유희하는 환희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1992년 스위스의 아서 에델만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포스트휴먼 전'과 1995년 '동질성과 이질성 인간 신체의 역사'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작가들은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의한 인체 변형 작업이 미래에는 우리의 우리 모습과 다른 포스트 휴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작품의 포스트휴먼 상은 자아의 정체성을 상실한 무감동, 무표정, 무

<표 1> 그로테스크 개념의 변화, 관련 신체 담론, 예술에 나타난 표현 특징

시기	고대	중세/르네상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그로테스크 개념의 특징	장식유형 (잡종형태의 야만적 양식)	중세, 르네상스 그로테스크 (물질적 신체의 부절제와 과도, 웃음, 공식제도의 규율에서 해방)	경멸적 그로테스크 (부조리, 우스운)	낭만주의 그로테스크 (소외, 미의 확장)	공포	카니발 그로테스크 (웃음, 신체적 차원, 사회적 이상주의, 고전신체와 대립, 이중신체)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상호 보완적인 신체적·심리 정신적 차원, 희극과 공포의 경계와 위반)	인케니 그로테스크, 모던 그로테스크 (정신적 차원 소외, 공포)
관련 신체 담론	고전 신체 질서, 조화	신본주의 사상에 따른 고전 신체, 금욕주의 신체와 인간중심사상 대두에 따른 신체의 복권의 대조	공식적 규범적 신체		모던 신체(공식적 규범적 신체): 백인 엘리트집단에 의한 규범적 정상 신체와 이탈신체의 대조	포스트모던신체 (신체규범 경계의 해체): 주변적, 이탈 신체의 중심으로의 부각, 자유, 해방, 유희	포스트휴먼신체	
그로테스크 관련문학, 비평가		Rablais			Shlegel, Ruskin, Hugo	Kayser, Bahtin	Russo, Meindi, 김홍희	
예술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신체의 특징	고대 장식 유형: 인간/동물/식물의 결합	고대 장식 유형 지속 Bosch: 괴물, 지옥, 인간/비인간 결합, 육체의 쾌락 추구 마니에리즘: 불안정하고 왜곡된 신체			상징주의 (Redon, Munch): 욕망, 소외, 공포, 잔인 표현 왜곡, 과장된 신체 형태	초현실주의 (Dali, Magritt): 억압된 의식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왜곡된 신체, 인간 신체와 비인간의 결합, 절단된 신체 표현	feminism art, body art, abject art: posthuman 개념(신체의 파편화, 물질성, 해방) 신체 변형, 양성성, 동물성, 더러워진 신체, 성적 비천함 강조, 절단된 신체, 신체의 고통	

의식의 로봇 같은 인간들로 암시되었으며 인간인지 인형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섬뜩함과 그로테스크한 반응을 유발하였다. 다른 작가들은 절단된 신체, 눈이나 입이 지워진 얼굴, 죽은 시체의 부분 확대, 일그러진 얼굴 등을 표현한 작품으로 신체의 고통, 두려움, 가치의 모호성, 질병, 동성연애 등 현대사회의 위험성과 파괴성을 강조하였다(서준수, 1992; 전옥, 1995).

지금까지 살펴본 그로테스크 개념과 예술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양식을 <표 1>에 정리하였다.

IV.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

1.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시대 의상

신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중세시대의 복식이 인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데 비해,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은 십자군 전쟁 후의 교회 권위 약화로 인한 인간 중심적 사고와 예술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복식은 처음에는 순수 미의식을 추구하기 위해 인체미를 강조하였으나 점점 더 인체를 인위적으로 과장하게 되었다. 남자들은 남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어깨와 소매, 가슴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여자들은 여성미 표현을 위해 허리를 조이면서 소매와 스커트를 과하게 부풀렸으며 높고 커다란 러프 칼라와 함께 기이한 외관을 형성하였다(정홍숙, 1997). 이러한 과장된 복식구조를 통한 인체의 왜곡은 인공적인 부자연스러움을 연출하면서 무엇이 복식이고 무엇이 인체인지 모호하여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준다(그림 6). 바로크를 거쳐 로코코 시대로 갈수록 남성들의 복식은 과장을 벗어나 실용적인 것으로 변해갔으나, 여성들의 복식은 인공적으로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부풀리는 형식이 주가 되었다. 로코코시대 후기에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머리형과 실제 과일, 모형 선박 등의 장식 과용으로 우습고 기이한 머리형태까지 등장하였다.

2. 1930년대 초현실주의 패션

1930년대에 초현실주의 예술 양식의 영향을 받은 일부 패션은 초현실주의 기법의 사용으로 반이성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예로 의상의 앞과 뒤, 속과 겉을 바꿔 표현하고, 해양 생물, 새, 나무 등 자연물을 의상에 이동시켜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익숙하고 고정된 의상 관념에서 이탈된 낯선 표현을 추구하였다.



〈그림 6〉 르네상스 복식, 서양복식사



〈그림 7〉 David Bowie, 서양복식사

3. 1970년대 글램(glam)과 펑크(punk) 패션

1970년대 초에 David Bowie와 Bolan 같은 음악가들의 무대의상에서 시작된 글램 패션은 양성성을 나타내는 외모와 이에 대한 지지를 통해 기성 문화가 전통적으로 엄격히 규정해 온 성 역할에 도전하였다. 〈그림 7〉처럼 Bowie는 화려한 메이크업, 빨간색 같은 강한 색상의 머리 염색, 몸에 달라붙는 바디 스타킹 의상, 깃털 목도리 등으로 의도적으로 성이 모호한 양성성(androgyny)을 표현하였으며 젊은 층 하위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Polhemus, 1994; Herald, 1992). 글램에 의해 시작된 패션에서의 양성성은 1980년대에도 나타났다.

1970년대 중반 런던에서 등장한 펑크들은 기성세대와 문화에 대한 반항과 불쾌감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그들은 인공적으로 염색하고 위로 세운 머리, 과장된 메이크업, 찢어진 겹겹 가죽 옷, 거친 이미지와 문구의 티셔츠, 안전판과 배수 파이프처럼 일상에서 역할이 정립된,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조합한 장식(그림 8)으로 죽음, 절망, 공포를 통한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 성의 혼용 등을 극단적으로 나타냈다(Polhemus, 1994).



〈그림 8〉 펑크, street style



〈그림 9〉 고스 패션, street style

4. 80년대 고스 (goth/gothic) 패션

1980년대 초 런던 Batcave 클럽에서 시작된 고스 패션은 보라와 선흠색 빛이 가미된 검정 벨벳, 레이스, 망사, 가죽, 코르셋, 장갑, 스틸레토 구두와 초자연적 신비스러운 테마와 종교를 묘사하는 은색 장신구의 혼합이었다. 머리는 진한 검정 색으로 염색하였고 거친 빗질로 거대하게 부풀렸다. 얼굴은 죽음을 상징하도록 희게 칠한 피부에 피 같은 선흠색이나 검정으로 눈과 입술을 메이크업하였다. 이 표현은 여성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공통적이었으며 고딕시대가 배경인 드라클라처럼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이중성을 표현한 것이다 (Polhemus, 1994),(그림 9)

V. 20세기 말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 모던 그로테스크 이미지

위에서 살펴본 신체 담론과 관련된 그로테스크의 개념, 예술과 패션에서의 그로테스크 표현 특징을 바탕으로,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표 2>처럼 신체를 매개로 한 전통적인 이분법이 무너지는 경계의 모호성과 신체의 왜곡과 훼손 같은 신체에의 폭력의 범

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관련 사진은 패션 관련 전문가 2명과 상의하여 선정하였다.

1. 경계의 모호성

경계의 해체에 의한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여 낯설어지는 충격 효과와 함께 기존 질서와 한계의 개방이라는 내적 의미를 표현한다.

1) 인간/비인간 신체 경계의 모호성

그로테스크의 초기 개념으로 나타난 고대 장식 유형은 인간과 식물, 동물 등이 하나의 유기체로 얽혀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양식은 1990년대 패션에까지도 이어져 동물, 식물, 기계와 인간 신체의 결합으로서 나타났다.

인간의 신체를 비인간적 신체에 조화시키는 것은 주체와 성의 관계를 문제화한다(Warwic and Cavallaro, 1998).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는 인체를 동물화 시킴으로서 주체의 성적 본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무생물인 기계적 인공물의 병치를 통해 성적인 것을 억제하는 한편 오히려 무성에 성적인 표현을 부여함으로써, 역겨우면서 우스운 느낌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사이보그로 대변되는 인체와 기계의 결합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 전자 테크놀로지와의 새로운

<표 2> 20세기 말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의 미적 특성

그로테스크 패션	미적 특성		
	이미지의 범주	조형적 특징	내적 의미
신체를 매개로 한 경계의 모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비인간 경계의 모호성 · 성적 경계의 모호성 · 탄생/죽음의 경계의 모호성 · 신체의 전체성/파편성 · 경계의 모호성 · 적절, 깨끗한 신체/비천한 신체 경계의 모호성 · 복식/신체 경계의 모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 남성과 여성의 모호한 표현 · 생명과 죽음의 동시적 표현 · 신체 부분 강조 · 오염된 신체 표현, 성적 부위 강조 · 과장된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소외 등 현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 고발과 극복 · 이탈된 신체의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복귀 · 자유와 해방
신체에 가해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왜곡 · 신체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단순화, 과장, 기형화 · 신체 찢기, 상처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 · 미의식 확장

융합과 공생 속에서 이 이분법을 시대 착오적인 것으로 만든다(Springer, 1998).

결론적으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에 나타난 인간/비인간적 신체 경계의 모호성은 자연과 인간, 기계의 결합에 의해 인간 존재의 하락이라는 섬뜩함을 야기하는 한편 소외되고 억압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신체의 유희적 변화를 표현한다.

Thierry Mugler의 1992년 collection에 나타난 <그림 10>은 부분적으로 모터사이클의 부품, 기계화된 인체가 주는 섬뜩함과 신체 기능의 확장이란 즐거움의 공존이 풀리지 않는 긴장을 수반한다. 인간과 곤충, 새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Thierry Mugler의 '97 AW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 11>은 과도하게 여성성을 강조함으로써 한층 더 낮은 느낌과 동시에 유희적 효과를 준다.

2) 성적인 경계의 모호성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는 남녀 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호성을 통하여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일종의 자유와 해방까지도 느끼게 한다. 성적인 모호성의 특징은 유니섹스 모드에서 보여지는 남녀 양성의 공존이라기보다, 성도착

적 충돌 혹은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중성 이미지의 출현(최정화 외 1인, 1998)이라고 할 수 있다. Anne Demeulmeester의 '90 SS collection에 나타난 <그림 12>는 눈썹과 눈 주위를 강조한 강한 메이크업과 태도로 인해 여성의 가슴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한 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Red of Dead의 '96 AW collection의 남성은 화장과 표정을 통해 강한 이미지보다는 연약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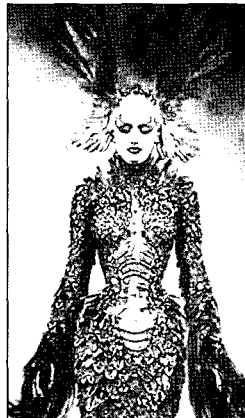
3) 탄생/죽음의 이분법의 모호성

살아 있던 것이 죽은 물건으로 되거나 죽음이 생명과 구분되지 않는 전이는 생물·무생물이란 근본적인 범주의 구별이 확고하다는 가정과 이를 기초로 세워진 지식과 신념을 침해하면서 공포를 낳는 한편 의식의 새로운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패션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은 공포의 감정과 함께 새로운 미의식의 확장 효과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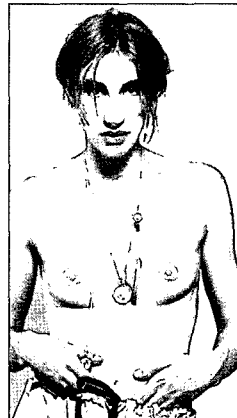
Helmut Lang의 '93년 SS collections에 나타난 <그림 14>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에 왕관이 씌어진 프린트로 죽음의 공포와 함께 삶의 유희 측면을 보인다. <그림 15>는 Olivier Theyskens의 '99 FW collection에 등장한 이미지인데 창백한 얼굴과 눈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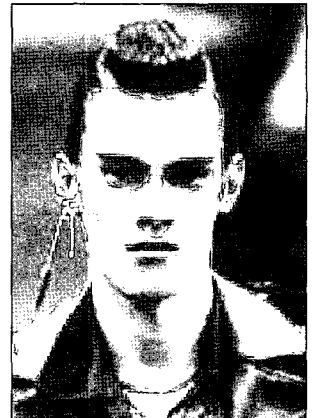
<그림 10> Thierry Mugler '92 SS Fashion News vol. 12



<그림 11> Thierry Mugler '97 AW Haute Couture collezioni n.60



<그림 12> A. Demeulmeester '90 SS Belgian Fashion design



<그림 13> Red or Dead '96 AW www.fistveiw.com



〈그림 14〉 Helmut Lang '93 SS
Fashion News vol. 17



〈그림 15〉 Olivier Theyskens '99 FW
Collections 99/00 autumn/winter II



〈그림 16〉 J.P.G. '93 SS Fashion
News vol. 17

위의 검은 메이크업, 풀어헤쳐 흘러내리는 머리가 마치 살아있는 시체의 이미지처럼 보이면서도 공포로부터 새롭고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4) 신체의 전체성·통합/파편성·분해의 모호성

다다, 초현실주의 등의 예술이 인체의 주요기관만을 중시하여 몽타주 편집이나 파편적 이미지를 생산한 것처럼 그로테스크 패션에서는 신체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이를 반복함으로써 그로테스크함을 창출한다. J. P. Gaultier의 '93 SS collection에 나타난 〈그림 16〉은 마치 머리카락이 그대로 반복되어 스커트부분에 위치한 것 같은 표현으로 신체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모호하게 강조되었다.

5) 깨끗하고 적절한 신체/더럽고 비천한 신체 경계의 모호성

비천한 예술은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이상화되지 않은 결집되고 소모된 신체를 과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적절한 신체개념에 도전하였다.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에 위치한 비천한 신체는 신체 내부와 외부, 주체와 객체간 경계에 있는 것으로 결국 모호하다. 또한 성적 차이로 구현된 여성 신체는 남성에 대한 타자 혹은 외부 존재로 됨으로서 비천한 신체가 되며 이런 이탈된 신체의 극복을 위해 예술에서는

여성적인 표현을 더 강조하거나 남성과의 구분을 거부하면서 남성의 성을 역겹게 강조하기도 하였다.

패션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타났는데 W & LT의 '95 AW collection에서는 남성의 성 부위를 역겨우나 과장되고 유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그림 17〉 Alexander McQueen의 '2000 F/W collection에 나타난 〈그림 18〉은 전형적인 로맨틱 풍 의상을 피를 연상시키는 오염으로 더럽힘으로써, 신체의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에 대한 미학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6) 복식/ 신체 경계의 모호성

신체와 복식의 경계는 문신, 피어싱, 페인팅, 화장, 의복 같은 신체 장식의 다양한 사용에 의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신체 장식에 의해 신체는 경계이면서 경계가 아니게 되며 이 모호함은 자아와 자아가 아닌 것간의 복잡한 관계를 낳는다(Warwic et al. 1998). 한 예로 복식과 신체간 패러다임의 변형으로 나타난 의복의 극단적 크기와 과장된 외곽은 피기스러움과 함께 희극적 충격을 준다.

J. P. Gaultier의 '91년 collection에 발표된 〈그림 19〉는 타이트하게 신체를 전부 뒤덮어 버린 복식에 의해 복식과 신체의 구별이 모호하다. 〈그림 20〉은 Viktor & Rolf의 '99 SS Haute Couture collection 의 상으로 인체의 선을 극단적으로 무시한 과장된 복



<그림 17> W & LT '95 AW
Belgian fashion
Design



<그림 18> Alexander McQueen
'2000 FW www.
firstview.com



<그림 19> JPG, '91
SS Icons
of Fashion



<그림 20> Viktor & Rolf '
99 SS Haute Couture
Collection vol. 21



<그림 21> Comme des
Garçon '97 SS,
Fashion



<그림 22> W & LT '98
SS www.
firstview.com



<그림 23> Vivienne
Westwood '94 AW
Next Fashion



<그림 24> A. McQueen,
'2000 FW www.
firstview.com

식의 예를 보여준다.

2. 신체에 가해진 폭력

신체에 가해진 변형과 파괴에 의한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는 잔인, 비정상성, 섬뜩함, 공포로 인한 충격효과를 유발하며,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란 내적 의미를 가진다.

1) 신체의 단순화, 과장, 기형화에 의한 왜곡

신체의 단순화는 기하학적 형태, 불규칙 형태, 혼합적 형태로 나타나며, 신체 과장은 고전적 신체비례에서 벗어나 부분의 확대나 축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형화는 신체구조가 비합리적, 비정상적, 비체계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으로 특정부분의 생략이나 반복으로 나타나거나 특정형태의 위치나 방향의 전환, 부분과 부분의 모순된 결합, 혹은 형태나 용적을 바꾸는 것이다(이건모, 1989).

Comme des Garçon은 '97 S/S collection에서 인체의 엉뚱한 부위에 패딩을 넣어 인체를 기형적으로 재생산하였고(그림 21), W & LT은 '98 SS collection에서 다리의 길이를 과장되게 늘려 표현함으로써(그림 22), 아름답고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충격을 줌과 동시에 이를 유희적으로 즐기 고자 함으로써 폐쇄된 미적 개념을 확장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2) 신체의 훼손

예술 작품에서 신체의 절단, 파손, 훼손이 일어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부정적 결과에 의한 인간의 허무주의 확산이 주된 이유이며 이를 통해 인체는 물질 그 자체가 된다(이건모, 1989). 패션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타났다. 예로 Vivienne Westwood의 '94 AW collections과 Alexander McQueen의 '00 F/W collection 나타난 <그림 23, 24>는 아프리카 미개 종족의 신체 뚱기 장식 같은 과장된 액세서리의 사용으로 신체를 훼손시킨 이미지를 제시하는 동시에, 무엇이 아름답게 장식된 신체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세기말의 혼란스런 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예술적 양식으로 간주되는 그로테스크를 최근 예술과 사회담론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신체와 연관시켜 패션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원래 식물, 동물, 인간 등이 서로 결합되는 고대 장식의 특정한 형식에서 유래된 그로테스크는 고정된 개념이나 양식이라기보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고 변화하였다. 예로 신체 및 신체적인 부절체에 관련되어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고 난폭하게, 그러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유쾌하게 찬양하는 것으로 혹은 양면성과 공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낯설어진 혹은 소외된 세계의 표현으로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포스트모던시대를 맞이한 후 그로테스크는 현대의 대표적인 신체담론으로서 신

체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20세기 말 패션은 복식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신체 인식과 복식의 구성, 제안 등에 있어 혼란스럽고 왜곡되고 충격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크게 신체를 매개로 한 전통적인 이분법의 경계가 무너져 모호한 것과 신체에 가해진 폭력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경계의 모호성은 인간/비인간 신체의 경계의 모호성, 남녀의 성적인 경계의 모호성, 탄생/죽음의 이분법의 모호성, 복식/신체 관계의 모호성, 신체의 전체성, 통합/분해, 파편성의 모호성, 깨끗하고 적절한 신체와 더럽고 비천한 신체의 경계의 모호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신체에 가해진 폭력의 이미지는 신체의 단순화, 과장, 기형화에 의한 왜곡과 훼손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서구 엘리트 권력집단에 의해 세워졌던 고정 관념과 이에 따른 이성적 이상적 신체의 규범적인 재현을 벗어나 소외된 집단과 소외된 의식의 등장을 표현하는 이미지이며 또한 현대 사회의 위험성과 파괴성을 반영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개념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짐으로서 인간성 회복과 미의식의 확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중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의 사례연구는 디자이너의 컬렉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지향하는 street fashion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와의 비교 연구가 후속 연구로 제안된다.

■ 참고문헌

- 김홍희(1998).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서울: 도서출판 재원.
- 논장편집부 위음(1998). 미학사전. 서울: 논장.
- 서준수(1992). 인체를 보는 오늘의 시각 - 포스트 휴먼전. 월간미술, 92. 10.
- 안선경, 양숙희(1995).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

- 님. 한국의류학회지, 19(2), 173-189.
- 이건모(1989).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후(199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옥(1995). 동질성과 이질성 - 인간 신체의 역사. 미술세계, 95. 7.
-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최정화, 유영선(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 40, 151-170.
- Atkins, Robert, 박진선 역(1994). 알기쉬운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서울: 시공사.
- Bakhtin, Mikhail, 이덕형, 최건영 역(2001).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서울: 아카넷.
- Buxbaum, Gerda & Affaticati, Andrea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 Prestel USA.
- Ewing, William A. (1997). *The Body*. London: Thames and Hudson.
- Gombrich, E.H., 백승길, 이종승 역(1999).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 Herald, Jackie (1992). *Fashions of a Decade: 1970s*. Chrysalis Books.
- Janson, H. W, 김윤수 역(1980). 미술의 역사. 서울: 삼성출판사.
- Jobling, Paul (1999). *Fashion Spread*. Oxford and New York: Berg.
- Martin, Richard (1990). *Fashion and Surrealism*. New York: Rizzoli.
- Meindi (1996). *American Fiction and the Metaphysics of the Grotesque*,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Mirzoeff, Nicholas, 이윤희, 이필 역(1999). 바디스케이프. 서울: 시각과 언어.
- Polhemus, Ted (1994).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 Pultz, John, 박주석 역(2000). 사진에 나타난 몸. 서울: 예경.
- Seeling, Charlotte (2000). *Fashion*. Konemann.
- Springer, Claudia, 정준영 역(1998). 사이버 에로스. 서울: 한나래.
- Strickland, Carol, 김호경 역(2001). 클릭,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 Terry, Jennifer & Urla, Jacqueline (1995). *Deviant Bod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Thomson, Phillip, 이영무 역(1985). 그로테스크. 서울대학교 출판부.
- Warwick, Alexandra & Cavallaro, Dani (1998). *Fashioning the Frame*. Oxford and New York: Berg.
- Collections '99/00 A/W
Fashion News no.12, no.17
Haute Couture Collezioi no.60
Haute Couture Collections vol. 21
www.firstview.com
두산 세계 대 백과 Encyber (<http://kr.encycl.yahoo.com>)

(2002년 3월 30일 접수, 2003년 9월 23일 채택)